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타타대우 '2023 더센' 대시보드 양산

민·관 부품기술 상생 성과

도-군산시-김제시-타타대우, 전북기술 사업 출연
단기간 집중 투자... 상용차 원천기술 독자적 확보
부품 개발과 함께 신형 상용차에 부품 탑재 양산

전북도는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 부품 기술개발 사업(이하 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신규 부품이 장착된 타타대우상용차의 '2023 더센(3톤, 4톤, 5톤)'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됐다고 2일 밝혔다.
타타대우상용차의 부분변경 모델 '2023 더센'에는 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대시보드(계기판을 포함한 전변부 장치), 에어서스펜션 시트 등 6개 모듈 단위 인테리어 부품이 장착됐다. 이에 기존 차량 대비 최신 실내 디자인이 개선되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가 적용되는 등 전반적인 품질 및 상품성이 향상됐다.
전북도의 기술개발 사업은 상용차 생산량 급감에 따라 도내 상용차 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지난해 10억원, 군산시 5억원, 김제시 5억원, 투자기업(타타대우상용차)이



타타대우 2023 더센 대시보드 (사진=전북도청 제공)

18억 원을 출연해 추진됐다. 이에 그간 수입해온 상용차 부품 및 시스템을 부품업체가 단기간에 기술 개발하고 제품을 상용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다. 2022년 5월 부품개발에 착수했고 사업계획에 따라 올해 3분기 사업화를 목표로 했으나 민·관이 노력

해 지난해 말 부품개발을 조기 완료하고 양산에 돌입해 이번 신차에 신규 부품이 적용됐다. 이는 과제 완료 후 경제적 성과 창출까지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 시일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성공적 지원 사례라는 평가다.
아울러 본 사업에 참여한 부품업체들은 타타대우상용차에 납품으로 즉각적인 매출이 발생해 경기 불황으로 힘들었던 직원고용 등에도 노력할 계획이어서 지역 경제에도 순풍이 기대된다.
전북도는 해외로부터 수입해오던 부품의 국산화로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대외변수로부터 공급 차질 위험 노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산화 부품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오택업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도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상용차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가 기업 매출 상승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입춘(立春)을 앞두고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立春)을 이틀 앞둔 2일 전주향교에서 유림들과 시민들이 입춘첩을 붙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교육 혁신"

한정수 도의원,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서

"탄소중립, 인류 생존의 문제... 특자도 목표로 삼아야"

도교육청, 학기제 개편 논의 등 통해 특자도 활용해야"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교육의 혁신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한정수 의원(익산 4·시진)은 지난 2일 제 397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정수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회를 얻었다"라며 "나후의 오명을 씻고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는 탄소중립"에 있다고 단언했다. 기후변화 자체는 환경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기후변화와 위기를 해결하고 역제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경제와 산업의 문제이고 인류생존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전북이 아무리 좋은 특례를 만들어 대기업이 유치되더라도 대기업은 결국 RE100 등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라며 "그렇기에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정수 의원은 또한 전북교육청 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전북교육의 역할과 변화 그리고 발전을 위한 깊은 고민과 특례 발굴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계의 무비관적 관행을 깨뜨리고 교육의 변화를 위해 학기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조직개편이 9개월째 진행되고 있고, 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 나아가 교원의 정가인사는 왜 꼭 3월과 9월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을 맞을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관행에 따른 불편과 문제를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의원은 "이 같은 관행으로 3월 신학기 교육현장은 전쟁통 같다는 말까지 들릴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는 전년도 12월에 출납이 끝나고 학교회계는 다음연도 2월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불일치로 행정적 공백과 차질 문제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학년말 학생평가나 졸업식 등의 마무리 업무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미 절반이 넘는 학교가 12월 말 혹은 1월 초에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학기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촉구했다.
한정수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학생 중심 미래교육이라는 교육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행으로 굳어진 교육현장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더 특별한 전북 만들기'... 김관영 도지사, 7일부터 시·군 방문 추진

임실·진안 방문 시작으로 두달간... '민생 속으로' 등 주제로

김관영 도지사가 시·군과 함께하는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군 행거기에 나선다.
전북도는 오는 7일 임실군과 진안군 방문을 시작으로 두 달간 도내 14개 시·군방문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선 8기 첫 시군방문으로 '시(군)청 속으로, 민생 속으로, 도민 속으로' 세 가지의 주제로 도정과 시·군정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도정의 답을 찾는 의견 청취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시(군)청 속으로'는 민선 8기

첫 시군방문임을 감안해 일일 명예 시장·군수로 위촉받아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시·군 간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시·군 청원들과 주니어보드를 통한 MZ세대의 북북튀는 아이디어 청취 등 생생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 도정과 시·군정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감의 시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민생 속으로'는 직접 민생현장에 방문해 도민과 함께 직접 체험하고 봉사하며 생생한 현장 이해의 시간을 갖고 개선점 등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도민 속으로'는 시·군별 특색에 맞는 정책그룹과 만나 도민들의 일상 속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계층과 의견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시군방문에 의전찰차 및 형식적인 보고를 없애고 도정 철학 공유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찾고 소통하려는 진정성에서 기획했다"며 "이번 시·군방문을 통해 시·군과 함께하는 더 특별한 전라북도 만들기 위해 시·군청, 현장, 도민과의 대화에서 격의없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일요일 신문 쉼니다.

장수군

역사를 배우고 생태와 교감하고
자연을 느끼고 체험을 즐기다



금강첫물
뜨거운 봄샘 생태관광지

NAVER 장수군 검색 DdM 장수군